

구름에 실려 가야산에 오르면

구름이 바람에 실려 가야산에 머물면 지친 나를 불러 친구가 되어준다.

정상에 올라 굽이굽이 흐르는 영산강을 내려다보면 시원한 강바람에 마음이 정화되고 황포돛배 물결 내며 유유히 흐르는 모습에 눈이 맑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니 노랫가락이 절로 난다. 풍류를 즐기다 보면 쌓였던 응어리가 녹아내려 사라지고 구름 따라 친구를 만나는 기쁨에 또다시 정상에 오른다.

영산강을 따라 흐르는 강물은 무슨 사연 품고 있을까? 세상살이 희로애락 한가득 품어 안고 고향인 목포 앞바다로 흘러가노라면 모든 것 내려놓고 편히 쉬리라.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으니 고향 가는 그날까지 바람에 실려 구름 따라 유유히 흘러가리라.

2026.5.13.(수) 가야산에 올라 영산강을 바라보며 글을 쓴다.